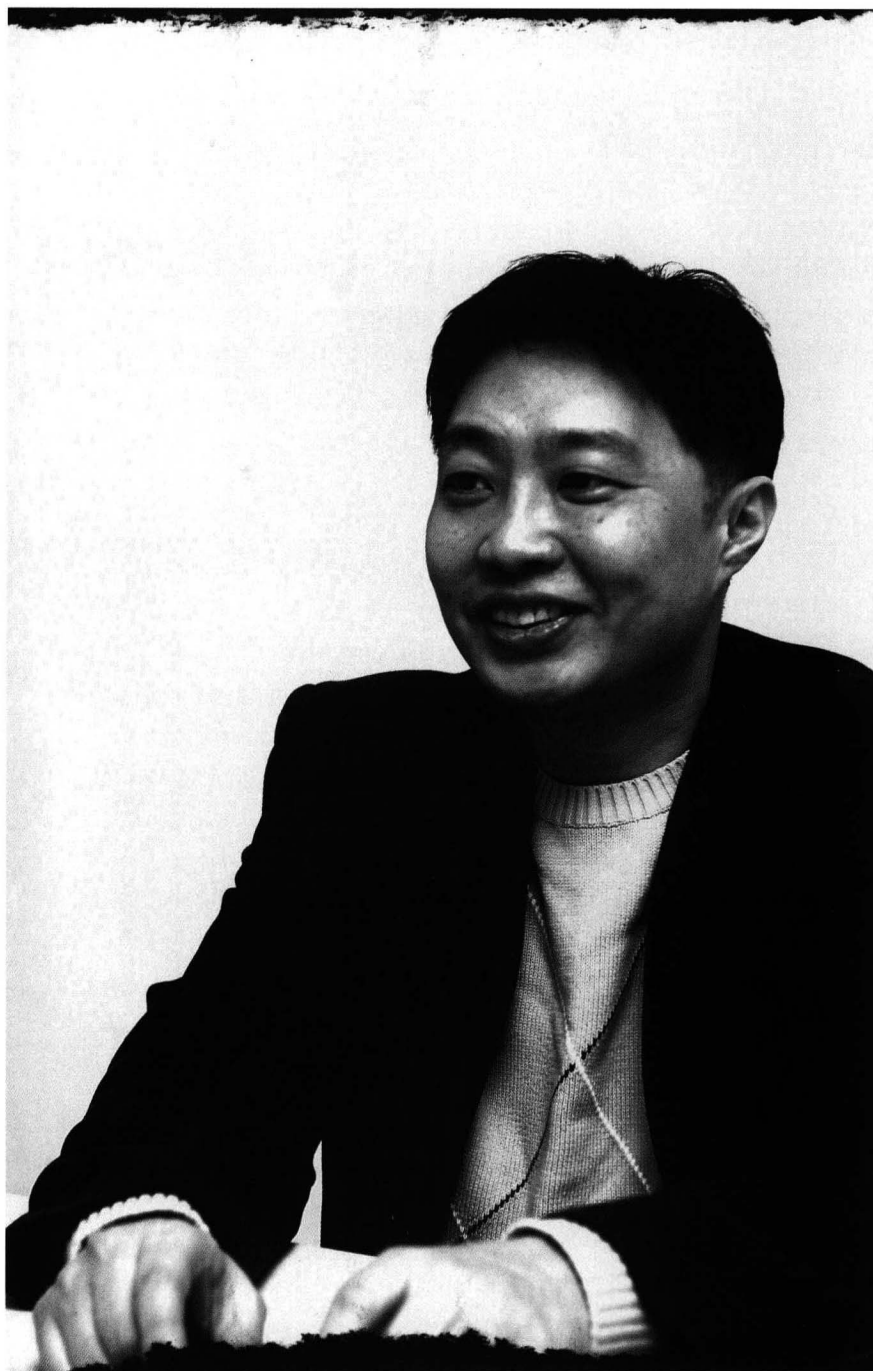


우석훈 기획실장  
《아픈 아이들의 세대》  
낸 초록정, 차연대

# 미세먼지의 유래와 부모의 의무



《아픈 아이들의 세대》  
우석훈 지음 | 뿌리와이파리 | 256쪽 | 값 12,000원

“진짜 죽습니다.” ‘아픈 아이들의 세대’의 출현을 예고하는 초록정 차연함 우석훈(37) 기획실장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가득하다. 우씨는 《아픈 아이들의 세대》를 통해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33개 뉴타운 및 지역균형특구 공사와 1,000여 개로 추산되는 각종 재개발지구 공사, 정부에서 추진하는 50여 개의 도로 개발사업과 행정수도 이전 후속조치, 그리고 수를 헤아리기도 힘든 아파트 재건축과 리노베이션 등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서울을 비롯한 전 국토가 PM10(Particulate Matter 10 : 미세먼지)으로 뒤덮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한 결과는 대재앙이다.

죽음의 행렬로 이어지는 ‘PM10’, ‘서울형 스모그’따로 정의해야  
우씨는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흔히 미세먼지라고 부르

는 PM10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세먼지는 운동장의 흙바람이 아니다. 10마이크로미터(1마이크로미터는 0.001밀리미터) 미만의 물질을 말하는 PM10에는 스모그, 황산연무, 페인트 안료, 분유 분말, 세균, 바이러스, 카본블랙, 담배연기, 초미립자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물질이 포함된다. Particulate Matter, 즉 ‘미립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미세먼지’라고 번역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잘못된 번역이 문제의 심각성을 감추고 있는 셈이다. 인체에는 PM10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허파파리를 죽이고 몸 안에 계속 축적되면서 황산화물 등 다른 오염물질과 결합하는 직접적인 발암물질로 작용하게 된다. 허용기준치라는 게 없는 셈이다.

때문에 우씨는 석탄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로 인한

‘런던형 스모그’나, 자동차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한 이산화질소가 문제가 된 ‘로스앤젤레스형 스모그’ 등과 구분해 PM10에 의한 ‘서울형 스모그’를 따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형 스모그의 특징은 피해가 1년 내내, 그리고 24시간 내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책적으로 이 피해를 줄일 만한 아무 장치도 가지고 있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서울형 스모그를 가장 시급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묵시록적 예고다. 문제는 아이들이다. 우씨는 2005년부터 향후 3년 동안 서울에서 피엠텐과 관련된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할 사람의 숫자는 5세 미만의 아이들과 노약자를 포함하여 10만 이상으로 추정한다(이미 현재 0~5세 유아인구는 전체 호흡기 환자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아픈 아이들의 세대’로 불리며 평생 각종 호흡기질환을 앓게 되고 뚜렷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죽음의 행렬을 뒤따르게 된다. 서울을 떠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라는 게 없다. 올해 아이를 갖기로 한 우씨 역시 여주의 신록사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 ‘악은이기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

그렇다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1퍼센트 경제성장이 우리 아이들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아이들도 앓고 경제성장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게 우씨의 ‘분석’이다.

“‘한국형 뉴딜정책’이라 부를 수 있는 지금의 전면적 국토 개발 국면은 미국 경제가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뉴딜 경제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건설업에 투기자금이 몰리면서 발발한 1929년 미국 대공황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성장률 1퍼센트를 높이기 위해 건설산업에 연금지급이나 공적자금 그리고 로또기금을 긴급히 투입해 20만~3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생경제’라는 것은 ‘한국형 대공황의 단추를 꼭 누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위죠. 이러한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부동산과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상위 5퍼센트 뿐입니다.”

희망은 없는 것일까? 있다.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 즉 모성이다. 우씨는 “아이들이 아파서는 안 되고, 아픈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철학과 어머니의 마음을 갖기 위한 출발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다음 아닌 생태주의다. 오늘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터전인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모성이요, 생태주의다. 그런 마음이 부모로 하여금 아이를 데리고 서울을 떠나게 할 것이고, 서울에서 ‘절대반지’의 유희(우씨는 지금의 한국사회를 《반지의 제왕》에서 그리고 있는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말한다. 절대반지, 즉 풍요를 향한 게 발논리에 인간이 스스로를 황폐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

서 악은 두려움이고 욕심에 다름 아니다. 우씨는 악은 물리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할 대상이라고 말한다)에 맞서 인간의 가치를 찾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씨가 이 책을 우리 어머니들이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에 전쟁에 반대하며 자살한 버지니아 울프를 비롯해 ‘시대의 어머니, 오드리 헵번’ ‘빠딱한 강패들의 어머니, 장지영’ ‘생명의 어머니, 생협의 어머니들’ 등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다.


희망은 또 있다. 아픈 아이들이다. 우씨는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비로소 세상은 변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들이 지금의 부모세대를 용서할 것인가? 그들이 부모세대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어른스럽게 자라나기를 바란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아픈 아이들이 자라면서 남을 미워하거나 자학하지 않고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한다. 그 아이들이 바로 이 사회의 희망이다.”(250쪽)

#### 《아픈 아이들의 세대 2》출간 준비... 배기가스회극적 묘사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를 졸업하고 파리10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우씨는 현대환경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국무조정실 등에서 환경관리와 기후변화협약 담당 업무를 수행했다. 기후변화협약 정부대표단으로 국제협상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50여 개 도시를 방문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3년만 한다는 게 8년이 됐다. 시민운동가치고는 조금 색다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학시절 사회운동단체의 비상근 간사로 활동하는 등 ‘바람직한 사회’는 그의 오랜 화두였다. 오히려 공무원으로서의 활동은 시민운동을 하는 우씨에게 큰 밑거름이 되었다. 다양한 세계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생리도 알게 된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애먼 소리만 늘어놓고 있을 것이라는 게 우씨의 생각이다.

현재 초록정치연대에서 정책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초록 경제 대안 만들기과 풀뿌리 지방조직의 지원, 농업 살리기 등의 일에 나서고 있는 우씨는 《아픈 아이들의 세대》 두 번째 권을 준비하고 있다. 1권이 비극적이었다면 2권은 컴퓨터 게임(철권)의 구조를 도입해 자동차배기가스 문제를 희극적으로 그려낼 예정이다. 또한 우씨가 한국사회가 배워야 할 모델로 연구하고 있는 스위스를 청소년들에게 소개하는 30권짜리 시리즈물도 기획하고 있다. 그 첫 번째 권은 《스위스의 극우파》(가제)가 될 것이다. 

취재 신동섭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